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8. 20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원예작물과장	강상훈	☎ 760-7450
		업무담당자	김주영	☎ 760-745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제주 여름쪽파 신품종 ‘제주S-12호’ …현장서 호평

- 보급 확대 가능성 · 시장경쟁력 높게 평가…종구 보급 확대 추진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여름재배용 쪽파 신품종 ‘제주S-12호’의 농가실증 현장평가 결과, 종합평가 88.4점을 기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.

○ 지난 14일 애월읍 곽지리에서 열린 현장평가회에는 실증농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1명이 참석했다. 현장에서는 ‘제주S-12호’의 생육과 수량 특성을 공유하고 향후 보급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다.

※ ‘제주S-12호’는 2026년 5월 품종출원됨

○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‘제주S-12호’는 보급 확대 가능성 90.5점, 시장경쟁력 86.3점으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.

□ 실제 농가실증에서도 ‘제주S-12호’는 중국산보다 수량이 많고 잎끝마름 발생이 적어 여름철 안정적인 생산 가능성을 보였다.

○ 애월읍 곽지리 실증농가에서 생육을 조사한 결과, ‘제주S-12호’는 중국산에 비해 초장과 잎 길이가 길고 줄기가 굵은 것으로 나타났다. 분얼수*는 적었으나 분얼당 엽수*는 많은 특성을 보였다.

* 분얼수: 갈라진 줄기 개수

* 분얼당 엽수: 갈라진 줄기 한 개 당 잎 수

- 수량은 10a당 평균 1,792kg으로 중국산 1,348kg보다 약 33% 많았다.
- 농업기술원은 올해 ‘제주S-12호’의 현장 적용성과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애월·한림지역 3개소, 0.3ha에서 농가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.
- 실증에 참여한 농가는 “‘제주S-12호’의 생육이 왕성하고 잎이 하얗게 변하는 백태 발생이 적은 데다 곧게 자라 상품성이 좋았다”며 “8월 출하에서도 좋은 가격을 받아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”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
- 농업기술원은 안정적인 농가 보급을 위해 우량종구 생산·보급체계를 구축하고, 시비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재배기술을 매뉴얼로 정립해 여름쪽파 재배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- 김주영 농업연구사는 “이번 현장평가회를 통해 ‘제주S-12호’의 우수한 생육과 수량성은 물론 농업인의 높은 재배 의향도 확인했다”며 “현장에 필요한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우량종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”고 말했다.